

# 새로 나온 詩集

## 지금 남은 자들의 골짜기엔

고진하 지음

1987년 계간「세계의 문학」에 「빈 들」 「농부하느님」 등을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한 시인의 첫시집. 신이 부재하는 시대의 '빈 들'에 대한 고통스런 묘사로 이루어진 표제작을 비롯해 모두 60여편을 한데 묶었는데, 종교적 지평과 실존적 지평이 의미있게 어우러진 '기독교 시'의 한 가능성을 보인다고 평가되기도.

민음사 / B6신 / 110면 / 2500원

## 우리는 하루를 해처럼은 넘을 수가 없나

백우선 지음

1981년 「현대시학」 추천원료를 통해 시단에 나온 '교사시인'의 첫시집. 「비에 젖은 것 하나」 「우리는 돌이다」 「뚝질하는 아내」 「사람 얼굴 무늬 수막새」 등 4부로 나누어 모두 65편의 작품을 실었다. 「무우청빛 하늘」이나 「푸른 불꽃의 무지개」 등이 상징하는 「맑고 단아한 시적 표정」 속에 삶에 대한 존재의식을 투영하고 있다는 것이 시인 김수복의 평.

문학세계사 / B6신 / 116면 / 2400원

## 땅에 글을 쓰다

정공채 지음

「정공채시집」 「해점」 「아리랑」 등을 펴낸 바 있는 시인의 제4시집. 「흐르는 물길처럼 막힘이 없고 굳 것이 없는」 시상으로 삶을 사랑하며 부른 노래 60여편을 3부로 나누어 묶고, 권말에 평론가 윤재근의 작품해설 「三上의 시인」을 덧붙였다. 「고독하여도 환한 시간을 다스리며 슬프도록 아름다운 존재의 울음이 이 시집 속에 담는다」는 것이 시인의 말.

신원문화사 / A5신 / 138면 / 2000원

## 탄광마을 아이들

임길택 지음

강원도 산골과 탄광촌지역에서 오랜 교직 생활을 했던 현직교사(경남 거창 중유국교)의 시집. 동시적 어법 속에 아이들의 눈으로 본 탄광마을 사람들의 세계가 진솔하게 펼쳐지는데, 탄광촌 사람들이기에 아직도 잃지 않는 순박한 삶의 면면들이 자못 감동적이다.

실천문학사 / B6신 / 128면 / 2000원

## 동트는 미포만의 새벽을 딛고

백무산 지음

첫시집 「만국의 노동자여」로 지난해 제1회 이산문학상(문학과지성사 제정)을 수상한 바 있는 시인의 제2시집. 1988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4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울산 현대중공업과업과정을 한편의 완결된 장시형태 속에 형상화했는데, 「노동자가 권력을 손아귀에 움켜쥐기 전에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언명에서 보는 것 같은 '직접적 선동성'의 강화가 특징적이다.

노동문학사 / A5 / 178면 / 2500원

## 하늘이여 땅이여 아아, 光州여

고은 외 지음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광주민중항쟁의 참 뜻을 되살린다는 기획의도 아래 엮어진 앤솔로지. 1987년 이후 씌어진 일련의 광주관련 「오월 시」 112편(장시 3편 포함)을 한자리에 모았다. 모두 4부로 나눈 가운데 광주의 의미, 광주의 진상, 광주의 사람들, 그리고 광주 이후의 우리들 삶을 노래한 시편들로 구성했다.

황토 / B6신 / 332면 / 3300원

## 올리브숲속의 비둘기

韓豊作 지음

설익은 관념이나 사회적 의미가 탈색된 순수서정을 모두 지양한, 서정과 지적 의식의 행복한 만남을 추구하는 시인의 첫시집. 지난 3여년간 서독에서 광부생활 중 올리브숲이 무성한 지중해연안을 여행하며 쓴 표제작을 비롯해 모두 65편의 작품을 5부로 나누어 묶고, 권말에 시인 윤강로의 해설 「삶과 사물과 자의식의 시」를 실었다.

문학세계사 / B6신 / 118면 / 2400원

## 사람으로 봄비는 앓은 슬픔이니

정현중 지음

첫시집 「사물의 꿈」(1972)에서 지난해 상재한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에 이르기까지 특유의 분방한 상상력과 시적 탄력으로 꾸준한 주목을 끌어난 중견시인의 시선집. 제3회 연암문학상 수상기념으로 엮어졌는데, 기간 시집들에서 추려낸 작품 80편과 함께 「사랑할 시간이…」 이후 씌어진 작품 15편을 같이 묶었다.

문학과비평 / B6신 / 180면 / 2500원

## 우리시대의 자화상

민병일 지음

직업군인(특전사 대위)이라는, 시인으로서 는 보기 드문 이력을 지닌 민병일의 처녀시집. 시인 자신이 총검을 들고 지켰던 비무장지대의 비애를 민족적 아픔으로 인식, 이를 분단 극복의 의지와 미래에의 전망으로 승화시킨 「비무장지대」 연작을 비롯해 모두 70여편의 작품을 5부로 나누어 묶었다. 권말에 시인 문병란의 작품해설을 실었다.

폴빛 / A5신 / 178면 / 2500원

## 장미는 아이들을 눈뜨게 하고

정화진 지음

1986년 계간「세계의 문학」에 「칼이 확대된다」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시단에 나온 이래 「오늘의 시」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시인의 첫시집. 방이나 부엌, 마당 같은 축소된 공간 속에 세계를 담아놓고 물과 불의 복합적 상상력을 통한 비유적 이미지들로 유년의 상처를 묘사하고 있는 작품들이 주종을 이룬다.

민음사 / B6신 / 148면 / 2500원

## 김포행 막차

박철 지음

무크 「창비 1987」에 「김포」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시단에 나온 이래 「시힘」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60년대産 젊은 시인의 첫시집. 「김포」로 상징되는 척박한 현실에 그 시정신의 뿌리를 박고, 거기 사는 이땅의 민중들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삶의 지변을 되짚어보게 하는 시 70여편을 4부로 나누어 묶었다. 제2부는 「김포」 연작시 20편만을 따로 모아 실었다.

창작과비평사 / B6신 / 164면 / 2200원

## 철공장 주변의 아이들

김상운 지음

수채화적 소품의 깔끔함 속에 가벼운 위티시즘을 주조로 한 내면정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젊은 시인의 첫시집. 「새는 나무 꼭대기에 앉아서 / 첫소리를 낸다」는 표제작을 비롯해 모두 70여편의 작품을 3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형태주의적 실험을 시도한 작품과 함께 환경오염에 대한 깊은 시적 관심이 눈길을 끈다.

한라 / B6신 / 118면 / 2000원

## 소돔城 1990

윤성근 지음

1981년 「월간문학」을 통해 시단에 나온 이래 「우리 사는 세상」 「먼지의 세상」 등을 펴내며 60년대産 시인의 선두주자격으로 주목을 받아온 윤성근의 제3시집. 「문학이, 시가, 삶이 나를 버렸다. / 모범생이었던 나를 금치산자로 말아」로 시작되는 「행복한 연금생활」을 비롯, 모두 50여편의 작품을 한데 묶고 권말에 시인 자신의 산문 「물질적 시 - 진정한 소통을 꿈꾸며」를 덧붙였다.

세계사 / B6신 / 104면 / 2000원

## 우리는 사랑에 굶주렸기에 그저 사랑에 굶복해야 할 뿐입니다

김광영 지음

「정보사회학 특강」 「인간과 정보활용」 등 일련의 「컴퓨터시필집」으로 잘 알려진 김광영(외무부 외교안보원)의 첫시집. 「나는 시인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 나의 사랑 이야기를 / 남기고 싶을 뿐입니다」는 「어느 시인」의 한 구절에서 보는 것 같은 얼핏 아마추어리즘적인 풋풋함이 돋보이는 순정의 시세계가 펼쳐져 있다.

박우사 / B6신 / 116면 / 2000원

## 오늘이 그날이다

김종철 지음

한국일보(1968) 및 서울신문(1970) 신춘문예를 통해 시단에 나온 이래 「서울의 유서」 「烏耳島」 등을 펴내며 활발한 시작활동을 벌여온 시인의 제3시집. 일상의 모습에 주목하면서도 그 현상의 뒷에 치이지 않고 본질의 뿌리가 닿으려는 노력을 주로 보이는데, 「어린왕자를 기다리며」 「못에 대하여」 「오늘이 그날이다」 등 연작시들이 많이 수록돼 있는 점이 특징.

청하 / B6신 / 116면 / 2000원

## 옛날 옛날에 호랑이 한마리가

전미혜 지음

대교출판 / A5신 / 188면 / 3500원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방송 '옛날 옛날에' 시간에 방송된 전래구연동화 가운데 재미있고 재치있는 이야기 16편을 가려 엮은 책. 지혜와 재치로 호랑이의 폭력을 무찌른 토끼와 어린이, 기발하고 지독한 구두쇠작전으로 돈을 모아 서당을 세우는 토목공이와 차린고비, 지나친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한 어리석은 호랑이 이야기 등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재치가 서린 이야기들이 컬러그림과 함께 실려 있다. 이야기마다 지은이의 동화구연에 관한 도움말이 있어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데, 지은이가 직접 구연한 테이프가 곁들여져 있기도.

## 꽃새

김학선 지음

아동문예 / A5신 / 178면 / 2500원

올해 제10회 해양아동문학상을 수상한 동화작가 김학선씨의 창작동화집.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우리 어린이들을 상징하는 「꽃새」를 비롯해서 바닷가 거북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갈매기의 합창」, 아파트의 상쾌한 아침을 불러오는 수탉이야기 「아파트에 사는 수탉」, 따뜻한 심장이 없는 만들어진 「기계새」 이야기 「황금새」 등 모두 8편의 창작동화가 실려 있다. 현대도시문명 속에서 동심처럼 맑은 삶의 귀중한 의미를 일깨우려는 지은이의 노력이 "읽고 버리는 동화가 아니라 읽고 가슴에 담아두는 동화"가 되도록 하고 있다.

## 문제감상 아프리카여행

김오희 지음

웅진출판 / A5신 / 174면 / 2700원

현석이와 현주가 아빠, 엄마와 함께 아프리카를 여행하며 만나는 문제들을 주로 수학의 원리를 통해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소설처럼 재미있게 엮은 책으로 어린이들의 창의력 개발을 위해 쓰여졌다. 창의력이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탄생시키는 능력으로서 적절한 연습을 통해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책은 그러한 창의력 개발연습을 아프리카여행의 재미를 통해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출발, 아프리카로'에서 '안녕, 아프리카'까지 모두 다섯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민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에게 적당한 수준이다.

## 옛날 옛적에

김종상 엮음

지경사 / A5신 / 206면 / 2500원

우리 조상들은 부엌에는 조왕신, 변소에는 측간신, 대문 밖에는 거리신이 있어 집의 안팎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또, 지금도 어촌에서는 용왕제가, 농촌에서는 지신밟기를 하고 있다. 이 책은 이같은 우리 전래의 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단군이나 고주몽 같은 조상신 탄생신화보다는 천신이나 지신 같은 자연신화 및 무속신화를 주로 다루었다. 옥황상제와 총명부인 이야기를 비롯해서 오귀대왕과 바리공주 이야기, 아기를 지켜주는 삼신할머니 이야기, 지모신이 된 자청비 이야기 등을 쉽고 친근한 그림과 같이 실었다. 부제는 '신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 왕시경의 새로운 경험

유중하 엮음

창작과비행 / A5신 / 194면 / 2500원

앞으로 우리가 '친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중국의 동화 가운데 재미있고 유익한 것들을 골라 우리말로 옮긴 책. 중국에서 출판된 「상해아동문학선」과 「우수단편소설집」에서 1949년 이후의 중국현실을 다룬 작품들을 가려 뽑았다. 일과 노동에 대한 중국어린이들의 올바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귀뚜라미」(런따린), 「바로 지금부터」(청웨이), 「왕시경의 새로운 경험」(장요우더어)을 비롯해서 「책소동」(허쯔), 「동생」(하오란), 「공명선거」(왕안이), 「달력이야기」(리양뽀), 「덜렁쟁이」(리런샤오) 등 모두 7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동화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중국을 폭넓고 깊게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 터벅터벅 네발 두발

최현 지음

내일 / A5신 / 126면 / 2000원

과학저술가로 이름난 아이작 아시모프의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대로 국내작가들이 과학의 정확성을 유지시키면서도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도록 소설처럼 재구성한 과학이야기책 「퓨처리티 과학문고」의 첫책권. '이상한 동네와 이상한 아이들' '수상한 벽돌집' '박사에 대한 수수께끼' '우리는 개구쟁이 꼬마과학자' 등 일곱 부분으로 이어진 장편동화의 틀 속에 인류의 출현, 영장류와 유인원, 진화,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논인, 피테칸트로푸스 에렉투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 등에 관한 과학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재미있고 유익한 사견과 삽화를 풍부하게 수록한 점도 특징.

## 비둘기의 꿈

이영호 글 · 이정아 그림

평화 / A5신 / 146면 / 2000원

"휴전선의 철조망도 훌훌 단숨에 넘어 북한땅으로 갈 수 있는" 비둘기의 이야기를 통해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 통일의 염원을 그린 반공교육동화. "그래, 그렇다. 이곳 공산당 우두머리는 바보멍청이다. 백성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기만 해. 그렇다고 봄이 안 오니?" 잿빛 비둘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렇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 얼음 녹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 국민학교 저학년들이 읽기 쉽게 삽화를 많이 넣고 큼직한 활자를 썼다.

## 아기천사의 일기

김정빈 지음

동화문학사 / A5신 / 178면 / 2500원

소설 「단」으로 유명한 작가의 첫동화집. 198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나무와 아이」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온 작가가 그동안 발표했던 작품들 가운데 21편을 가려 뽑아 한권에 묶었는데,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에게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잔잔하게 펼쳐져 있다. 꿈과 사랑과 순결과 빛과 환상과 자연스러움으로 가득찬 행복한 동화의 세계를 그린 「아기천사의 일기」를 비롯해 「아이와 눈사람」 「로보트와 도깨비」 「개나리와 병아리」 「분홍색편지와 갈색편지」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심사숙고 임금님 이야기」 등을 읽고, 책끝에 지은이의 생각을 밝힌 「동화쓰기의 즐거움과 행복」을 덧붙였다.